

2014년 4월 12일 수요일의 일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는 거야. 하지만 별로 공부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아침은 7시 30분, 인수일이 시작이라 할 수 있지만 모든 학교 수업이 6시니까 시간표로 랜덤이어서 별로 힘들지 않았어. 그러나 오늘 방과후에 수학경시대회가 있던 것을 깜빡했어. 내가 문과라서 그런걸 몰랐어. 생각은 안했는데 이번에 문과용이 생겼다고 해서 한번 봤어. 한문계 정은 풀이집을 안보니까 다 손발이 끝났어. 한문계로 짜려운 것 같아.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우리문계를 풀었다고 하더라. 반성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이라하면은 싶어서 자책했었어. 문과에서 타행이라고 문과사가 아닌 교내 수학경시대회를 타행이라고 생각하여 접어둬. 교문을 내지려는데 학생회 준비가 사정하잖아 찍어 달라한다. 몇일 뒤에 있을 스승의날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아. 리장도 안보니까 머리로 감이있지만 자생기원때부터 부탁을 해주기로 했다. 점점 따듯해진다. 오늘 아침에 배아해서 새삼스럽게 신기하지 않았어. 주주벌 입었다. 문과생인데 날씨가 좋았다. 23일날 클럽사정을 위해서 4:19에 가는데 걱정된다. 하루종일 안아있어서 살이 많이 찰까봐 걱정이다. 엉덩이만 살이 찰까봐. 하복기때가 안들어간다. 큰입이다. 오늘 23일로 상안찍을 안했다. 배 꼬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일 집갈때 걸어들어가야겠다. 아참. 요즘 워낙 집에서 공부를 해서 시끄러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 가족이랑 데리고 안된다. 귀머리 데리고 안가야 할까. ~~배~~ 배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이사올지도 모르겠다.